



|우수작|

## 아이러니에 대한 경의

MBC 수목드라마 <고맙습니다>

강보라

그런 순간이 있다. 문득 세상의 시선이 외면된 채, 자신이 외로이 켜진 핀 조명 아래 서 있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 말이다. 수두에 걸려 어렵사리 학교에 갔건만 수두약으로 얼룩진 얼굴을 보며 슬금슬금 책상을 옮기는 짝꿍의 모습, 한겨울 줄이 길게 늘어진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발이 빙판에 미끄러져 넘어지던 순간의 당황스러움은 모두 ‘순간의 핀 조명’이 켜지던 기억일 것이다.

지난 3월에서 5월까지 약 두 달에 걸쳐 MBC 수목드라마로 방영되었던 <고맙습니다>는 삶에서 어쩔 수 없이 맞닥뜨리게 되는 이런 ‘핀 조명의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거기서 우린 모든 게 완벽한 나머지 삶의 권태와 잉여에 대해 자조하는 한량들이 아닌, 정확히 말해 그 대척점에서 있는 이들과 만나게 된다. 삶을 ‘밥’과 같이 여기는 사람들, 과거의 늪에 발목이 잡힌 사람들, 그래서 미래가 아닌 현재에 쫓기는 사람들, 바로 푸른도의 사람들과 만나게 된다.

푸른도의 사람들은 모두 극단적인 아이러니를 안고 산다. 아이를 부정한 남편을 가진 여자가 자신의 아들에게는 그의 아이(‘여자’의 손녀)를 부정하라고 하고, 미혼모인 다른 여자는 세상을 향한 증오 한 번 품지 않은 채 순수한 온정을 베풀다. 자신과 같이 의사였던 아버지를 통해 직업에 대한 환멸을 느끼면서도 죽어가는 생명 앞에서 저절로 희생의 손길을 내미는 남자가 있고 그의 앞에는 어느 날 갑자기 ‘요술코트’를 입고 ‘에이즈가 옮으니 가까이 오지 말라고’ 손사래를 치는 꼬마가 있다. 이 외에도 각자의 삶이 빚어낸 아이러니를 안고, 때때로 그와 대적하며 살아가는 푸른도의 사람들이 등장한다.

드라마 <고맙습니다>는 이처럼 무언가 결핍된 부분에서 발생하는 아이러니에 주목한다. 사건과 사건 사이, 시선과 시선 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빚어지는 아이러니는 삶의 불완전함을 방증하는 과정, 그 자체다. 즉, 어찌할 바를 몰라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핀조명의 순간’에 반사적으로 그를 극복하려는 힘이 발휘되고, 이는 결국 아이러니하게만 느껴지는 삶을 근근이 이어갈 수 있는 생명력으로 발전된다. 그래서 이 드라마는 삶을 가능케 하는 아이러니에 경의를 표하는 의미에서 줄곧 “고맙습니다”를 내뱉게 되는 것이다.

<미안하다 사랑한다>와 <이 죽일 놈의 사랑>과 같은 이경희 작가의 전작들을 살펴보면 초반부터 극적인 설정과 비극적 결말을 암시하는 장치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드라마 전반에 드리운 죽음의 그림자는 시청자로 하여금 종종 ‘비극을 예견하는 자의 무기력함’을 느끼게 하여 색다른 카타르시스를 제공하곤 했다. 다르게 말하자면, 이경희 작가가 드라마를 통해 발군의 실력을 발휘할 때는 다름 아닌, 고통받는 자(프로타고니스트)의 고통과 고통받는 자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시청자)의 고통을 마음대로 ‘요리’하는 순간인 것이다. 드라마 <고맙습니다>는 이와 같은 전작에서의 특징이 조금 희석된 면이 없잖아 있다. 동시에 그 희석된 고통을 한층 심오한 수면으로 끌어올렸다. 이는 곧 드라마의 고통을 존재 안에 품어버린 등장인물들을 통해, 또한 그들의 삶에 대한 태도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주인공 민기서(장혁 분)는 이경희 작가 전작의 남자 주인공들이 그랬듯, 다분히 순정만화적인 요소들을 안고 있다. 적당히 사회성이 결여되었고, 애인의 죽음과 관련한 트라우마를 안고 있으며, 애정결핍에 모성 본능을 일깨우게 하고, 물리적 폭력 안에 사는 ‘길거리 남자’다. 상대로 등장하는 영신(공효진 분) 또한 ‘이경희 표 여주인공’의 면모를 고루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천성이 착하고 자기표현을 하는 대신에 상대를 배려한다. ‘누나 성’이 강해 자신보다 심적으로 어린 남성을 돌보아주고, 가족애를 중시하며, 때때로 답답한 부분도 내보인다. 특히 영신은 강한 어머니상과 여린 소녀상이 혼재하는 인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그녀가 고통을 극복하는 과정에 있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이를테면 기서가 자신을 향한 애정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영신은 자신을 일컬어 ‘무생물’이며, ‘그저 봄이 엄마’라고 하지만 이는 자성적 성찰이라기보단, 그녀의 삶에서 고통으로 혼란된 ‘감정처리 양식’의 일부분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그리하여 본래의 소녀성은 타성에 의해 감춰지고, 준비 없이 주어진 모성애는 자의에 의해 점차 발현된다. 곧 그것이 ‘생물이지만 무생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소녀 엄마’의 솔직한 실체이기도 하다. 이 드라마의 또 다른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봄(서신애 분)이는 이경희 작가의 전작들과 차별화를 두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초반에는 봄이의 존재로 인해 ‘아이가 나오는 착한 드라마’라고 단순히 오인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봄이는

물리적인 나이만 어릴 뿐, 또 다른 ‘성인(成人)의 자화상’으로 인식된다. 즉, 아이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특유의 의외성, 예측 불허성, 통제 불가능성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그렇기에 오히려 ‘무늬만 어른’인 이들의 무방비성을 공략하기도 하고, 전체적인 구성의 빈틈을 메우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세 인물에게 있어, 그리고 드라마 전체에 있어 나타나는 공통점은 바로 ‘아버지의 부재’이다. 각자의 사정은 다르지만, 그들은 아버지가 있어도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거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거나, 아버지라 부르던 이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이는 곧 ‘엄마’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나아가 근원적인 모성에 대한 향수를 한층 짙게 한다. 예컨대 기서나 석현(신성록 분)은 그로 인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시달리고, 영신은 부성과 모성을 압류당한 채 다른 이들을 향한 극단의 모성을 강요받게 된다.

이렇듯 촘촘하게 엮인 극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고맙습니다>는 요동치는 듯한 하이라이트의 높낮음이 없어 아쉬움을 남겼다. 푸른도라는 지극히 한정된 공간 안에서 에이즈에 걸린 아이, 미혼모, 치매노인이 함께 모여 사는 ‘봄이네’가 겪는 일상은 고통스러우리만큼 잔잔했다. 물론 그러한 잔잔함이 현실감을 높였다고도 할 수 있지만, 시청자가 드라마에게 기대하는 건 ‘있는 그대로의 리얼리티’가 아닌 ‘있을 법한 리얼리티’임을 상기한다면 조금 더 ‘끝까지 치닫는 결말’이었어도 좋았을 것 같다. 플롯 구성상 또 하나의 강점이자 약점은 극명한 대립구도라고 할 수 있겠다. 특히 강 여사가 극 전체의 대립구조를 조종하는 중심축으로 기능하다 결말에서 화해구도로 나아가는 과정은 다소 급작스러웠다. ‘원래 악인은 없는 법’이고 ‘핏줄 앞에선 장사 없는 법’이라지만, 영신과 봄이 모녀에게

매물차게 굴던 ‘악녀’가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봄이의 병을 고쳐주고자 하는 선녀’로 탈바꿈하는 데에 결정적인 계기가 부재한다는 지적은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아쉬움을 뒤로하면서 드라마 <고맙습니다>는 끝까지 ‘고맙다’는 말을 아끼지 않았다. 강 여사는 “할머니는 착하게 생겼잖아요.”라고 말해주는 봄이를 향해서 고마움의 눈물을 흘렸고, 할아버지는 푸른도의 모든 집에 초코파이를 나누어주며 이제까지의 삶에 감사를 표했고, 석현은 봄이에게 “난 네 아빠가 아니야. 너희 아빠가 얼마나 멋진데……”라며 속으로나마 자신이 봄이의 아빠일 수 있음에 고마워했다. 기서는 영신을 치료하며 자신과 사랑하는 이를 동시에 살려내는 ‘인술’이 존재함에 감사의 안도를 내쉬었고, 영신은 하룻밤의 풋사랑이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의 근원인 봄이로 치환됨에 경이의 감사를 내뱉었다. 그리고 정작 봄이는 할아버지로부터 엄마로부터 그리고 푸른도로부터 배운 “고맙습니다”를 연신 외쳐댔다. 모두가 혼자지만 동시에 혼자가 아님을 마침내 깨달은 것이다.

한 수필집에서 소설가 김훈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말할 때 세상의 더러움에 치가 떨렸고, 세상의 더러움을 말할 때는 세상의 아름다움이 아까워서 가슴 아팠다. 저물어서 강가에 나가니, 내 마을의 늙은 강은 증오조차도 마침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이경희 작가의 페르소나인 민기서 또한 이와 같은 말을 했을는지 모른다. 어느 정도 철이 들어 바라본 세상은 자신을 냉소의 끝자락으로 내몰았고, 그 끝자락에서 허덕이며 불면중에 시달리던 절망의 나날들 가운데 희망의 형체를 새삼 확인하게 되고, 더듬더듬 희망의 빛을 따라가다 보니 모든 게 용서가 되더라고 말이다. 그리고 그 용서는 처음부터 타인을 향한 것이라기보다

자신을 향하고 있었음을 고백하게 되었노라고 말이다. 거듭 드는 생각이지만, 드라마 <고맙습니다>의 모토는 숨이 붙어 지금을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한 고마움이자, 자신을 용서하고 자신의 상처를 용서할 수 있음에 대한 고마움이다. 그리고 이는 드라마 밖의 삶에서 매일의 아이러니를 마주하며 그에 절대 ‘고맙습니다’라고 답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응졸함을 향한 따스한 성찰이다.